

구례, 섬진강 수해 재발 방지 '총력'

1,700억 규모 복구사업 진행 서시천 일원 임시 방호벽 설치 옛 문척교 임시제방 자재 비치

지난 2020년 8월 큰 수해를 입은 구례군이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구례군은 항구적인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내년까지 1,700억 원 규모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우기를 맞아 임시 방호벽을 설치하는 등 홍수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사 완료 전 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지난 2020년 섬진강 수해 당시 낮은 제방 높이로 인해 물이 넘었던 서시천 일원에 임시 홍수방호벽을 설치했다. 올해 준공을 목표로 제방을 보축하고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 5개 현장은 하천 내 하상 정리를 마무리했다. 구례읍 봉서리와 문척면 월전리 일대 침수피해 원인으로 지목됐던 옛 문척교는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 즉시 임시제방을 쌓을 수 있도록 현장에 톤마대 등 자재를 비치했다.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7개 현장은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방수포 등을 활용해 사면 보호 조치를 완료했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오탁방지막을 설치했다. 최근 현장 점검을 실시한 유영광 부군수는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등을 통해 홍수대피시설을 갖추고 공사 기간 예방조치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2020년 섬진강 수해와 같은 아픔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구례군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을 통해 배수펌프장 7개소를 신설하고 지방하천 2개소(서시천, 백연천)와 소하천 5개소(봉서천, 죽연천, 구성천, 전천천, 월평천)를 정비하고 있다. 사업은 내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구례군 지방하천 4개소(중산천, 흥대천, 토지천, 마산천)에 대해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례=손석봉 기자



광양시가 최근 '2022년 마을활동가 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 /광양시 제공

광양, 마을활동가 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

광양시가 최근 광양 중앙도서관 인문학실에서 시민 30명을 대상으로 “2022년 마을활동가 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 마을활동가 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은 지역 주민이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의사소통 능력과 스마트 회의 등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지역문제 해결에 마을주민의 참여와 소통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필요한 핵심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했으며, 3일에 걸쳐 24시간 동안 마을활동가의 역할과 퍼실리테이션 이해, 상호작용을 돕는 인터랙션 기술과 실습을 병행해 교육생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강의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퍼실리테이터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면 한국퍼실리테이터 협회에서 인증하는 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하는데, 이곳에 와서 교육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기회를 얻어 기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돼 감사하다”고 밝혔다. 박종태 투자일자리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역량 있는 마을활동가가 양성돼 주민 간 소통과 협력의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도록 하고 전문 퍼실리테이터 현장 활동가로서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활동을 펼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마을활동가 선발 시 이번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을 우대할 예정이며, 마을공동체가 단기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마을활동가 육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권동현 기자



보성군이 '민선 8기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보성, 18일까지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

민선 8기 소통 행보 시작

보성군이 지역 현장 여론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민선 8기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민선 8기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는 1일 3개 읍면씩 진행되며 민선 8기 군정 운영 방안 등을 공유한다. 또한 취임식을 취소한 김철우 군수가 직접 주민을 찾아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보성군 민선 8기는 '군민이 주인공이 되는 군정 실현'을 위해 군민과 함께 군정을 이끌어갈

는 주민참여형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이번 군민과의 대화를 계획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군민과 깊이 있는 대화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군정발전 방안이 있는 주민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우 군수는 “민선 8기 보성군정 슬로건을 '다시 뛰는 보성 3·6·5'로 정했다”면서 “보성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보성군민과 함께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보성=백종두 기자

여수 '섬섬여수수 페스티벌' 16일 나진물량장 일원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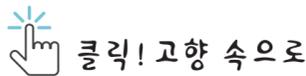
여수시가 오는 16일 화양면사무소 나진물량장 앞에서 '2022 섬섬여수수수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여수시가 주최하고 섬섬여수수수 향토사업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7일 오후까지 이틀간 펼쳐진다. 페스티벌은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섬섬여수수수 전시관 ▲남민버스킹 공연 ▲깜짝 노래자랑 ▲옥수수 껍질 빨리 벗기기 대회 등 이벤트행사 ▲옥수수 전통과자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여수=곽재영 기자

곡성, 휴가철 행락 질서 확립 팔 걷어

내달까지 중점기간 운영

곡성군이 휴가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에서 생활 방역 수칙 준수 계도와 올바른 행락 문화 지키기에 나섰다. 곡성군은 행락 질서 종합 대책을 통해 7~8월을 건전한 관광 및 행락 질서 확립 중점 기간으로 지정했다. 해당 기간 중 곡성군은 도립사 계곡, 압록유원지, 태안사 계곡 등 주요 관광지 9개소에 대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0여 명의 행락 질서 계도 요원을 배치했다. 관광지 내 공중화장실 점검, 피서지 생활 쓰레기 관리, 무단 투기 및 무단 취사 등 각종 무질서 행위 방지 활동을 통해 질서 있고 올바른 행락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곡성=한정길 기자

해당 기간에 주요 물놀이 관리 지역에 대상으로 안전시설 점검, 안전 요원 배치에 대한 사항도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바가지요금, 가격 표시 미이행 여부 등 물가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곡성군은 방문객이 안심하고 관광지를 찾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유입 차단 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른 지역에서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중점적으로 생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올여름 곡성군을 찾아오시는 모든 분이 즐겁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한정길 기자



여수운항관리센터, 여객선 특별안전점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여수지사 운항관리센터가 최근 안전하고 쾌적한 해상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객선 10척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섬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여수운항관리센터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

선급,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사안전감독관과 함께 합동점검단을 꾸려 특별점검을 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항해·통신장비의 정상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소방 및 구명설비, 비상기기 및 주기관 상태 등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설비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곡성경찰, 경찰발전협의회 위원 위촉

곡성경찰서가 최근 앞으로 2년 동안 곡성군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경찰발전협의회 위원 23명의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열린 위촉식에는 김경규 경찰서장과 각 과장, 박양규 경찰발전협의회장을 비롯한 22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김경규 곡성경찰서장은 “이번에

신규 위촉된 회원들을 환영하며,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협회가 지지부진했던 만큼 앞으로 더욱 활발한 상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찰발전협의회는 지역주민과 경찰이 상호 협력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협의체이다. /곡성=한정길 기자



보성 득량면-보성강수력발전소, 업무협약

보성군 득량면과 ㈜한국수력원자력 보성강수력발전소가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보성강수력발전소는 득량면의 마을경로당에 소규모 수선사업과 물품을 지원한다. 조승권 득량면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어르신들과 상생하는 보성강수

력발전소가 되길 바라며 행정에서도 어르신들의 복지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강수력발전소는 1937년 3월에 준공된 국내 최고령 수력발전소로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과 복지 지원사업, 장학사업 등에 앞장서고 있다. /보성=백종두 기자